

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대전(본원): 대외협력실 이종성 042 - 869 - 0976 / 최영진 0947

문의: 과학기술연구망센터 노민기 책임연구원 (042-869-0554)

배포번호 : 2019-08

매수 : 보도자료 2매

배포처 : 대외협력실

배포일자 : 2019.02.15

KISTI, 데이터 중심 연구에 발맞춘 네트워킹 연구환경 마련한다

- 연구자 간 데이터를 통한 협력 및 데이터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연구성과 창출 기대 -

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(원장 최희운, 이하 KISTI)은 14일 KISTI 본원에서 20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대상으로 빅데이터 중심의 변화하는 연구현장의 기술과 인프라에 대비하는 ‘KREONET R&E Together 협력위원회’를 개최하였다.

KISTI 국가과학기술연구망(KREONET) R&E Together는 2015년 미국에서 시작한 태평양 리서치 플랫폼(PRP) 프로젝트*처럼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다수의 연구기관이 과학데이터의 전송과 공유의 중심을 기존의 백본 속도중심에서 종단 성능중심으로 발전시켜 데이터 중심형 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이다.

*태평양 리서치 플랫폼(PRP) 프로젝트 : 미국 국립과학재단(NSF)과제로서 미국 대학 및 연구소 대상으로 한 오픈사이언스 플랫폼으로 사이언스 프리웨이 구축을 통해 과학분야 빅데이터의 초고속 전송, 공유, 계산을 위한 연구환경 제공

‘KREONET R&E Together’는 기존 네트워크의 속도에서 2~10배 빠른 대용량데이터전송모델(이하 ScienceDMZ) 네트워킹 기술을 중심으로, 연구자가 연구현장에서 발생한 과학데이터 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기관에서 발생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본인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

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국가과학기술연구망은 1988년부터 과학기술처(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)가 지원하는 산학연 주요 200여 개 기관의 다양한 과학기술정보자원과 슈퍼컴퓨터, 첨단과학기술분야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으며, 이를 바탕으로 국내 연구자들에게 공동협업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.

이번 'KREONET R&E Together'는 기존 구축된 초고속 네트워킹 환경에 실제 연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ScienceDMZ기반으로 데이터 전송 성능과 접근성을 더해서 빅데이터를 연구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데이터 중심형 연구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.

KISTI 석우진 과학기술연구망센터장은 “기존의 초고속이지만 물리적 속도에 머물러 있던 기존의 네트워킹 환경에서, 연구자들이 속도 그 이상을 체감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성능중심 네트워킹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.”라며 “4세대 데이터 중심의 과학으로의 빠른 변화와 이를 대처하는 네트워킹 기술과 인프라의 변화는 시급하다. 이번 'KREONET R&E Together'는 기존 연구현장의 데이터를 통한 협력뿐 아니라 데이터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분야의 연구 창출도 기대된다.”라고 말했다.

붙임 : 관련사진

<첨부>



<사진 1 : KREONET R&D Together 협력위원회 회의 후 카이스트 등 27개 기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>



<사진 2, 사진3 : R&D Together 협협력위원회 위원들이 시범서비스와 기관 확대를 위한 협력회의를 하고 있다>